

146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13) 일광 견뢰도의 로트차이

□ 일광 견뢰도의 로트차이

해설)

- 여성 재킷을 클리닝한 후 뒷 몸판 등에 퇴색이 발생되었음. 색상은 동일 색상의 퇴색이며, 염료의 탈락이라 할 수 있음. 또 퇴색되어 있는 부위의 특징으로서 옷깃에 덮여 가려진 부분에는 본래의 색이 남아 있고, 또 안측 부분의 같은 천의 색도 겉과 비교해서 짙은 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외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음.
- 소재는 폴리에스터 100 %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염료는 분산염료로 추정되었음. 분산염료는 섬유 내부에 분산되어 있는 염료가 열의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표면으로 이동하는 열전이(thermo migration)현상을 보이며, 섬유 표면의 염료는 공기 중으로 「승화」되는 성질이 있음.



- 이것은 착용 기간에 태양열 등의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염료가 섬유 표면으

로 이동하여(경시열화) 승화를 반복하면서 광퇴색된 것이라 할 수 있음. 클리닝 이전에 전체가 오염되어 있던 것이 클리닝에 의해서 색 차이가 선명히 된 인상을 준 것임.

- 한편, 이 제품은 앞 몸판과 뒷 몸판의 봉제 라인을 경계로 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, 봉제에 사용된 원단의 로트차가 있음을 의미하며, 특히, 일광견뢰도(KS K 0700)와 프레스 열에 대한 승화견뢰도에 제조 로트차가 있음을 의미함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